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 : 고린도후서 5 : 11~6 : 10

요절 : 고린도후서 5 :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난 주 김 어거스틴 목자님이 전한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4:7)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의 속에는 보배 되신 큰 능력의 예수님께서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 했습니다. 바울의 보이는 겉 사람은 약하고, 낡고, 박해와 옥여쌘과 답답한 일들로 가득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잠깐 있다가 무너질 이 땅의 장막에 불과하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늘 새롭고, 환경에 침몰하지 않았으며 항상 승리하였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의 집을 소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지난 주 말씀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배경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실존을 새롭게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5:11~15)

다같이 14a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a)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온갖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교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9:3~5) 바울은 죄인 중의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사도로 불러 주신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잡혀 일생을 주를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 믿을 때 이 사랑에 붙잡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며,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5박6일 간의 수련회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가시에 찢린 자국마다 핏방울이 흐르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은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주님의 고통과 절규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던 나의 작고 초라하고 무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 온 나의 무지와 교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통회의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대신 내어 준다면 그 사랑만큼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병든 자, 귀신들린 자, 가난한 자,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에 울고 있는 자들의 치료자요, 구원자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영광을 다 누리셔야 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두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창에 찢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의 수액이 다 빠지고 고통하시다 운명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 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1~6)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 그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추하고 약한 것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어지면 버립니다. 아니 늙고 병들고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고귀한 피 흘리시어 나를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같이 14b,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14b,15)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15b)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이요 영생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첫 사람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살라고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있고, 인생을 내 뜻대로 멋있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참된 의미와 행복,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면 허무와 절망, 그 결국은 심판과 멸망 뿐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고통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 없고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립니다. 아담의 잃어버린 낙원이 심령에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16~21)

다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16)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는 것은 육체 곧 겉 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

해 사는 자들이란 나의 육체 곧 겉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영을 좇는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사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육신을 좇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경륜을 지닌 뛰어난 유대교 지도자였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5,6)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1:23)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같이 17 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17) 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하늘과 땅과 인생들은 숭한 역사와 세월을 거치면서도 본질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하늘도, 바람도, 물도, 나무도, 온갖 생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특히나 완벽하고 좋았던 피조물은 첫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죽지도 않는 영생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곧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이 완벽한 낙원에서 하나님은 아담에

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범죄 함으로서 저주와 형벌이 인생들과 온 땅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와 질병, 고통과 저주, 흑암과 사단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 역사는 그 저주의 질곡에서 고통 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의 후예들로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질고와 슬픔, 고통과 흑암아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죄의 흉악한 멍에를 피해 갈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짐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와 고통이 되고 가시와 쓴 뿌리가 되어 평생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사망과 지옥형벌로 끌어갑니다. 누가 이 죄의 잔인한 멍에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인생들은 또 수많은 전염병과 불치병, 난치병, 각종 암과 같은 질고로 고통 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질고의 사슬로부터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난과 궁핍, 경제적 어려움은 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아로 고통 한다고 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긍심을 빼앗아 가며 인간의 존엄을 말살합니다. 고독과 절망이 인생들을 괴롭힙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고독과 절망이 덮쳐올 때 사람들은 진정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인생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잡아가는 세력은 죄와 사단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은 인생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질병은 자연의 현상이고 과학이라고 속입니다. 전쟁과 기근의 책임을 정치제도 때문이라고 속입니다. 가정불화와 파탄의 원인을 사람을 잘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모든 불행, 고통, 재앙, 질고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 역사가 계속되었지만 이 원천적인 불행과 저주의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절망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 하다가 영원한 심판의 지옥형벌에 던져질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되는 초자연적이고 초감각적인 환희와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격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며(겔11:19,36:26), 너희를 살어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여호와와의 군대가 되고, 죽은 갯벌이 생명의 강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 새 영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저주, 형벌을 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창조된 새 것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사단마귀의 울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 죄의 형벌들은 사라졌습니다. 질고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가난의 굴레는 벗겨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잃어 버렸던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 부요로 충만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식, 불안, 공포, 두려움, 절망에 시달립니다. 질병의 사슬에 매어 사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가난과 운명의 묶임에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미움과 시기, 분노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와 사단, 환경과 운명의 노예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지닌 자녀 된 자의 영적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5~8)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영을 좇아 살았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 곧 옛 사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피가 흐르는 자연적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영의 존재,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상과 육체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8,1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하셨느니라”(18,19) 여기서 “화목하게 하시고”란 인생들의 모든 죄, 질고, 가난, 불행, 저주를 다 없이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심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고, 나의 질고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죄와 사탄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하고 추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외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질고, 슬픔과 고통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고, 내 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

의 아들이 채찍질 당하실 때 창과 못에 찔려 울부짖는 그 고통소리를 참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고와 슬픔을 없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20,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20,21)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이 무엇입니까? 20b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끝없는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온갖 사망과 저주의 열매를 맺던 데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6:1~10)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신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지내는 무지와 교만도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다가 수 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보내 준비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형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경천동지 할 엄청난 사랑의 사건을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흉악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2)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NIV)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Now! 지금입니다.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Now! 지금입니다. 먼 훗날 미래가 아닙니다. 내 년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 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그 때 물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질병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2천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고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 형틀 아래로 나아가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아야 합니다. 가난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도 여전히 죄와 사단의 세력에 끌려 다닌다면 주님이 피로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은 이후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동안 숭한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4,5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4b,5) 사람이 환난, 궁핍,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거기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굶주리면 남의 얘기라 그렇지 그 고통과 절망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을 잃고 좌

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불평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6,7) 라고 하였습니다. 8~10절에서 보면 바울은 상황과 외적인 형편만 놓고 보면 환난, 궁핍, 고난으로 매 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못 자고, 굶고 하느라 속이는 자 같고, 이름 없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 받는 자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바울은 그랬습니다. 또 그래야 당연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 어떻습니까? 그는 참되고, 유명한 자요 살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의 겉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망하는 것 같았지만, 속사람은 날로 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영의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 하였고,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힘을 다해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주님 위해 살라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였으며 새 것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신 까닭은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이 양손과 발에 대 못 박히시어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리신 고통과 치욕과 죽음은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찢리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질고는 치유되었습니다. 저주는 떠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드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 바쳐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에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주

저앉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
하면 못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주님 영광의 보좌 앞
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면류관 벗어 드릴 최
후 승리의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